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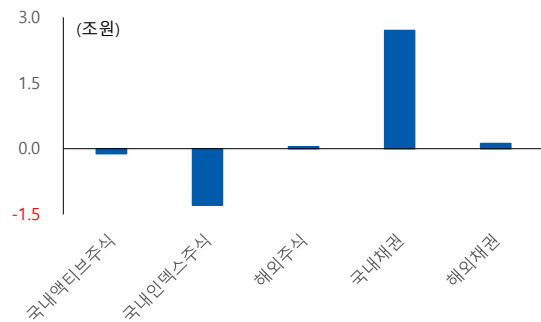


여전히 채권펀드

1. 여전히 채권펀드

- 미국 연준의 빅스텝이 이어진 작년에는 채권ETF 등 채권펀드와 채권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음. 2023년에도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인기는 이어지면서, 채권펀드로 자금 유입
-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 펀드 7개를 살펴보면, 5개가 채권 관련 펀드
- 채권펀드 중에서는 만기매칭형채권ETF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음.

연초 이후 국내채권유형으로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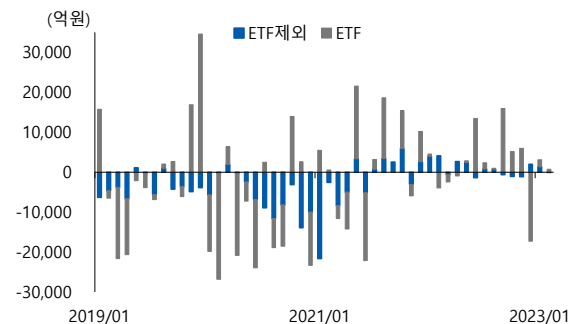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주식펀드 순유출 전환

- 연초 이후 국내주식펀드는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해외주식펀드는 2월 순유출로 돌아섰음
-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 주식펀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유망한 산업에만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테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국내주식펀드와 ETF는 2달째 소폭 순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여전히 채권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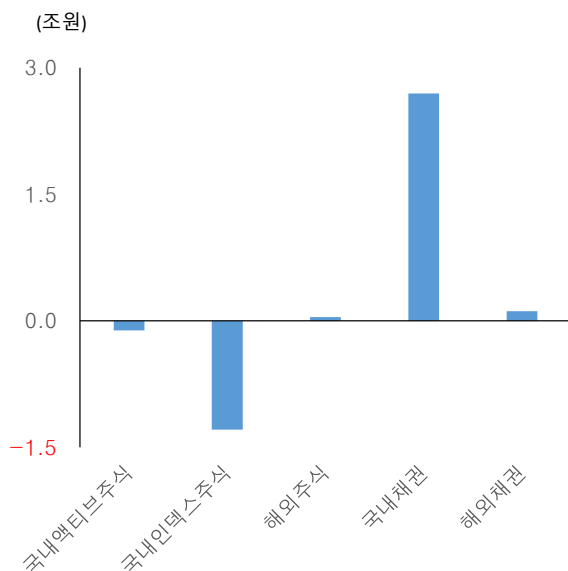
미국 연준의 빅스텝이 이어진 작년에는 채권ETF 등 채권펀드와 채권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다. 작년 4분기에는 채권 금리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2023년에는 채권 관련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23년에도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주식 시장이 반등할 때는 국내주식ETF를 중심으로 이익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만기까지 ETF를 보유할 경우 예상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10종으로 2022년 4분기에 상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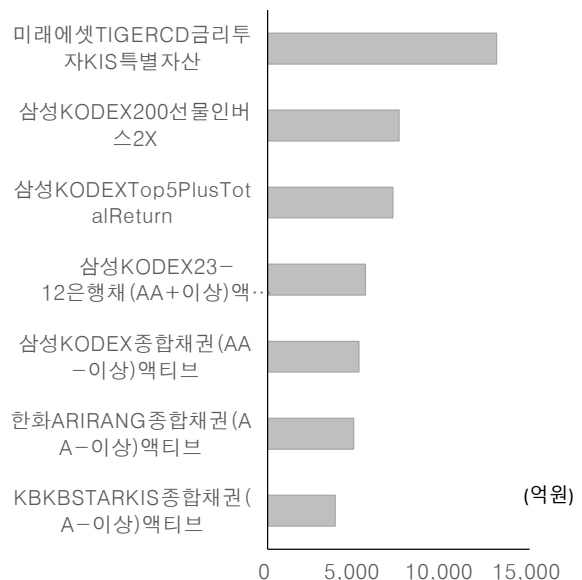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 펀드 7개를 살펴보면, 5개가 채권 관련 펀드이다. 주식관련 ETF는 인버스ETF와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차트1] 연초 이후 국내채권유형으로 자금 유입.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 9일 기준

[차트2] 연초 이후 채권액티브 ETF와 KOSPI200인버스 ETF로 자금 유입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 9일 기준

2. 해외주식펀드 순유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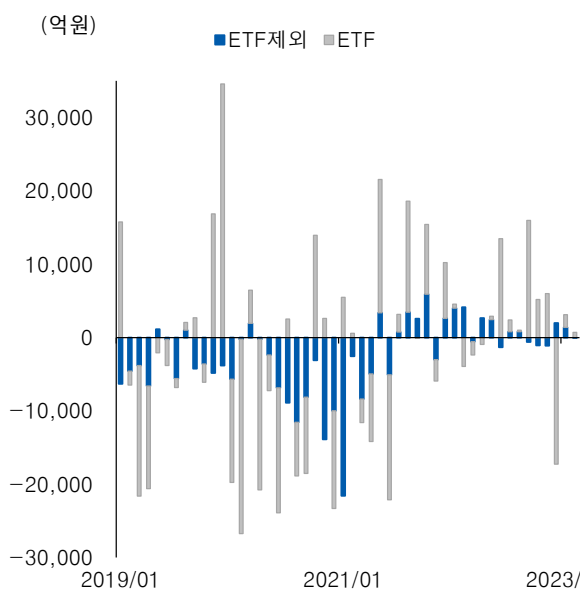
연초 이후 국내주식펀드는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해외주식펀드는 2월 순유출로 돌아섰다. 국내주식펀드는 작년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으나, 최근 2-3개월 동안은 자금 유입이 크지 않다.

국내주식펀드는 2달째 소폭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으나, 3월 들어서면서는 순유출 규모가 커졌다. 3월 들어 미국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

해외주식펀드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으나,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2월에는 6개월만에 해외주식펀드와 ETF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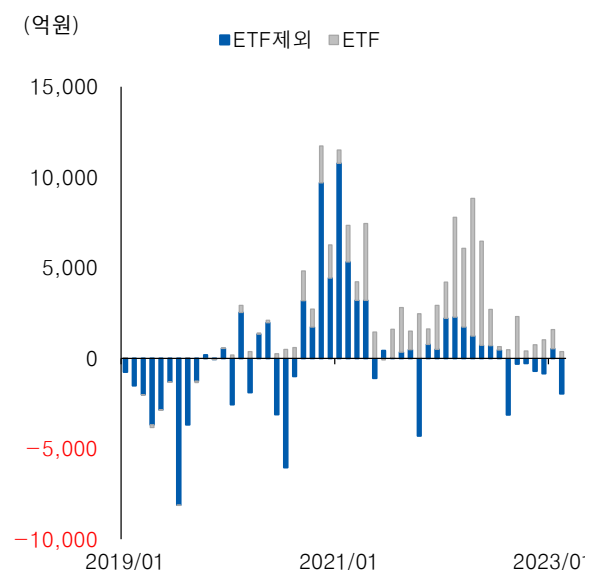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 유형의 성장을 이끌었던 해외주식ETF가 작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3] 국내주식펀드와 ETF는 2달째 소폭 순유입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해외주식펀드와 ETF는 2월 순유출 전환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연초 이후 돈 들어오는 펀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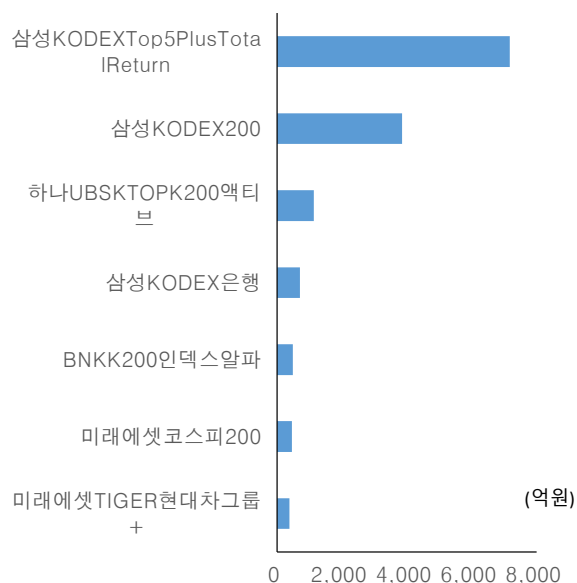
연초 이후 자금유입 상위 국내주식펀드는 '삼성KODEXTop5PlusTR'과 '삼성KODEX200', '하나UBSTopK200액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국내주식 중에서는 대형주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 자금이 모이고 있다.

삼성KODEXTop5PlusTR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시가총액이 크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5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대형 우량주 투자와 배당이 재투자되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는 2차전지와 기술주, 미국주식, 반도체 등과 관련된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할 때는 유망산업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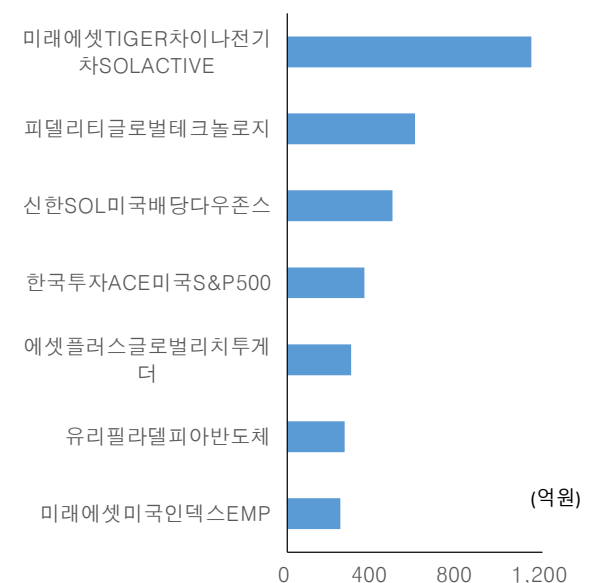
주식펀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유망한 산업에만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테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주식펀드에 투자할 때도 성과가 좋은 기업에 집중 투자 하는 ETF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차트5] 연초이후 국내주식 중에서는 대형주와 KOSPI200 추종 ETF 선호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 9일 기준

[차트6] 연초이후 해외주식 중에서는 전기차, 기술주, 미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 9일 기준